

주민 삶 직결 대규모 국가사업 1000여억 돌파

전북도 · 지역 정치권 공조 성과

익산시가 수백억에 대규모 정부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며 국가사업 공모분야 전국 최강의 면모를 보여줬다.

시는 올해 국내·외적인 경기침체 악조건 속에서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대규모 국가사업 1,000여억원을 돌파하며 지역발전의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김관영 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김수흥·한병도 국회의원 등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과의 원팀 정신으로 공조해 이런 성과로 더욱 의미가 크다.



국립호남권청소년상담센터 부지 전경

▲국립청소년상담센터 막강 광주광역시 제치고 최종 유치

시는 지난 12일 여성가족부의 '국립호남권청소년상담센터 건립지역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향후 약 200억원 규모의 국비가 투입된다. 오는 2026년까지 합계를 vari 일원에 상담실과 심리검사실, 음악치료실, 직업교육실 등을 갖춘 청소년상담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현장 실사에서 정현을 익산시장이 직접 발표하며 사업추진 타당성과 함께 강한 추진 의지를 피력해 광주와 경쟁한 결과 최종 건립지역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또한 시는 지난 7월 국토부의 '충청·전라권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부지 공모'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돼 교통안전도시로 입지를 강화했다.

시는 합계를 일원 약 16만6,000여㎡ 부지로 국비 270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375억원이 투입해 체험교육시설 10개 코스와 숙소 등으로 구성되며 연간 2만2,000명을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와 함께 부지 무상제공, 행·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협상을 거쳐 8월 중 최종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농촌협약과 농촌공간 정비로 공모선정... 국비포함 750억 확보

특히 시는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공모로 국비를 포함해 750억원을 확보해 농촌지역 전반의 생활 서비스 수준 향상과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에 나선다. 농촌협약, 농촌공간 정비 사업 등으로 나뉘

국립호남권청소년상담센터 건립지역 여기부 공모 선정 향후 국비 200여억원 투입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교통안전도시 입지 강화

농촌협약 · 공간정비 등 농촌생활 서비스 수준 시민 삶의 질 '업그레이드'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농촌협약 사업은 오는 23년 협약이 체결 후 5년 동안 국비 최대 300억원을 포함해 사업비 430억원(지방비 13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또한 시는 왕궁 학호마을, 장정마을, 합열, 황등, 낭산배석산 등 난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국비 포함 320억원을 투입해 농촌공간 정비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이 밖에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획평가원(ITP) 개발과제 공모에서 상용차·문화재 복원 서비스 등 27가지 분야 사업에 국비 77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33억원을 확보해 홀로그래프 기반의 다양한 기술 개발



로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전북도 · 정치권 공조 협력이 공모 성과
시는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과의 공동협력해 공모전 선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사업 구상 초기부터 익산 유치 최종전까지 지역 정치



- 1. 지난 6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익산시 당정협의회.
- 2. 국립호남권청소년상담센터 익산 유치 위한 지지 선언.
- 3. 제3차 법정문화도시 지정 기념 익산문화도시 시민보고회.

해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 실시부터 공조해 전북도, 지역 정치권과 협력으로 설계용역비 10억원을 국가예산에 반영했다.

익산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한병도 국회의원은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한 국소단장이 참석한 당정협의회 개최하고 중앙부처를 방문하며 입체적 대응을 펼쳐왔다.

시는 앞으로도 새 정부 국정과제와 도정 주요 현안을 연계한 대규모 신규사업 확보 전략 마련도 나설 계획이다. 새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국가스마트클러스터 2단계 추진 등 중앙부처 인적네트워크와 정치권과 밀접한 공조로 대상사업을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국가 재원 분배방식이 공모사업 형태로 확장된 만큼 앞으로도 전북도, 지역정치권과 공조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성공유치를 해나가겠다"며 "지역발전의 이룰 신규 사업들을 지속 개발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